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0호 【루계 제25699호】 주체106(2017)년 7월 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온 나라 강산에 끝없이 굽이치고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영생축원의 마음을 안은 수많은 군중들이 주체조선의 100년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시여 민족만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며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하며 끝없이 부강번영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도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찾아오는 각계층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무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림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림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개척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핵강국의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만리대공에 떨쳐지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굳은 맹세를 가다듬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여 세계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충정속에 빛나는 태양의 성지

지난 21년간 전국각지에서 금수산태양궁전지구의 수목원에 수많은 나무와 꽃관목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갖 지성과 정열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정에 의하여 주체85(1996)년 3월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수목원이 펼쳐진 때로부터 지난 21년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지성에 의해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였다.

지난 기간 전국각지에서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펼쳐진 수목원에 보내온 나무들과 꽃관목은 106만 7 500여그루나 된다. 수백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바늘잎나무풍치림구, 기름나무림구, 섬유제지림구, 산과실림구, 목재림구 등으로 형성되여있는 수목원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태양의 성지로 꾸리려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인민군부대들과 성, 중앙기관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가정들에서 해마다 진귀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루리들을 보내오고있다.

인민군장병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이 땅을 철벽으로 지켜갈 맹세안고 수많은 진귀한 나무들을 금수산태양궁전주변과 수목원에 옮겨심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농근맹중앙위원회, 인민보안성, 철도성, 국가과학원, 보건성, 중앙검찰소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목원을 찾아와 수종이 좋은 희귀한 나무와 꽃관목들을 심었다.

인민봉사총국에서는 지난 6년간 평양단풍나무, 잣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110여종에 4만 5 000여그루의 나무와 많은 백도라지를 정성껏 마련하여 수목원에 보내여왔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의 수목원을 풍치수려하게 하기 위해 온 나라 녀맹원들의 충정의 마음이 깃든 근 10만그루에 달하는 나무들과 진귀한 꽃루리들을 마련해가지고 이곳을 찾아와 정성껏 심었다.

중구역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지난 10여년간 은방울꽃과 백도라지, 물앵두나무, 수삼나무 등 13종에 3 000여그루의 나무와 꽃관목, 수많은 꽃씨와 꽃모를 정성껏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주변과 수목원을 아름답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분비나무, 종비나무와 기름밤나무, 호두나무, 수유나무, 오동나무 등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가치가 큰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관목들을 보내여왔다.

항일혁명투사 태병렬동지의 유가족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것을 가문의 첫째가는 가풍으로 내세우고 소나무와 잣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하여 400여그루의 나무들을 마련하여 수목원에 보내여왔다.

대성구역에 살고있는 김선비로인과 대동강구역 옥류1동에 살고있는 최금숙로인은 근 2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들의 손으로 꾸린 나무모밭에서 수종이 좋은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들과 꽃관목들을 키워 수목원에 심었다.

선교구역 동메3동에 사는 류류영예군인 리춘복동무의 가정과 동평양제1중학교 김무성, 김무광형제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주변을 더 잘 꾸리는데 충정의 마음을 바치였다.

지방의 수많은 단위들과 가정들에서도 자기들이 사는 고장의 희귀한 꽃나무들과 수목원을 특색있게 꾸리는데 이바지할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마련하여가지고 수목원을 찾고있다.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수목원의 풍치림구조성에서 기본수종들인 종비나무와 전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하여 15종에 8 5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다해 마련하여 보내여왔다.

룡양광산, 상원군산림경영소로동자 황철진동무의 가정과 안주시 청천강기술고급중학교 안명룡, 안진아오누이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지난 기간 수목원에 리없이 새긋한 마음을 바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주변과 수목원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길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충정에 떠받들려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금수산지구는 사시장철 푸른 숲 설레이는 풍치수려한 곳으로, 아름다운 새들이 끊임없이 날아와 그 종수가 다양하고 분포밀도가 매우 높은 지대로 되였다.

태양의 성지에 뿌리를 내린 수많은 희귀한 나무들과 갖가지 꽃관목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고결해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불세출의 위인

외국의 인사들 열렬히 칭송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외국의 인사들속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빌카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진보적인류는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사상과 실천으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주석께서는 그 누구도 깨여보지 못한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 거대한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20세기는 명실공히 김일성주석의 세기였다.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쌓으신 그이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 자위드 아흐마드는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인류사에 가장 뚜렷한 자욱을 남기신분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그이는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같이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들에게 뜨겁고도 진실한 정을 부어주신 위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미증유의 전설적기적들을 창조하신 그이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령도의 거장이시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인류력사에 명인,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주석처럼 생존해계실 때나 서거후에나 사상과 정견, 신앙과 언어, 피부색과 풍습의 차이를 초월하여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분은 없었다, 20세기가 낳은 성인중의 성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끝없는 흠모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인류는 그이를 잊지 못해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전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친근한 동지이시고 벗이시였다.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만민을 따뜻이 대하고 보살펴주신것이 바로 김일성주석 특유의 위인적향기였다.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주석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는것은 그이의 사상이 위대하고 풍모가 출중하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최고성지가 전하는 고결한 충정의 세계

우리 인민의 마음은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숭엄히 달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으시며 사랑하는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금수산태양궁전,

며칠전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한 전사, 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 위대한 헌신에 의하여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함께 영생하시고 이 땅우에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

이 성스러운 태양의 성지와 더불어 얼마나 위대한 수령영생위업의 거룩한 력사가 이 땅에 즐기차게 흘렀던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절절한 소망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금수산기슭은 오늘도 소중히 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집무실에 높이 모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그이께서 금수산의사당(당시)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실것을 결심하신것은 23년전 온 나라 인민들이 피눈물을 뿌리던 애도의 나날이였다.

주체83(1994)년 7월 12일이였다. 이날도 금수산의사당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어느 방, 어느 창가에서나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체취가 그대로 풍기고있는듯싶었다.

끓어오르는 격정을 애써 누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금수산의사당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하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있다가 조의형사가 끝나고 영결식까지 한 다음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에 오시여 나라일을 보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다 그렇게 한다고, 이제는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서 우리 혁명을 이끄셔야 한다고 거듭 간청드리였다.

그들의 말대로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수반이 서거하거나 자리를 내놓으면 그가 집무를 보던 청사는 공직과 함께 후임자에게 그대로 넘겨지는것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관례로 되어있었다.

그때서 일군들뿐아니라 우리 인민들도 수도중심부인 김일성광장이나 만수대언덕 혹은 만경대지구나 단군릉가까이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실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최상의 수준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려는 인민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러나 그 다함없는 지성우에 더없이 고결한 충정의 마음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금수산의사당에 계시면서 언제나 인민을 이끌어주도록 하시여 수령님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들의 념원과 분리시켜볼수 없으시였다.

원래 금수산의사당은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이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어버이수령님께 훌륭한 집무실을 마련해드리려고 깊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히 금수산기슭에 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건설주가 되시여 설계작성을 지도하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부대를 무어 과업해주시고 공사를 진두지휘하시였다.

건설이 완공되여 이곳으로 집무실을 옮기시였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런 건물은 없을것이라고, 이 집은 우리 인민들의 소원을 담아 김정일동지가 자신에게 지어준 선물이라고, 이 집을 금수산의사당이라고 부르자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 나날을 더듬어보시는듯 깊은 추억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집입니다, 나는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의사당에 모시려고 합니다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동서고금에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금수산의사당에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주체의 최고성지답게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수령영생위업실현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 나날에 새겨진 감동깊은 사연들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주체84(1995)년 6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깊이 모실데 대한 결정서가 세상에 공포된데 이어 7월 8일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의 개관식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그때 벌써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 전반구역을 만년대계로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실 새로운 구상이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인민들이 찬비나 눈, 뙤약볕을 맞지 않도록 궁전광장에 세계적인 외랑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그 설계방향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인민들이 리용할 궁전광장도 집좋고 보기 좋은 화강석으로 더 잘 포장하도록 하시고 새로 도로를 뚫고 풍치림도 조성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금수산기념궁전이 자기의 숭엄한 웅자를 세상에 드러내여 만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던 나날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의 다음단계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것인가를 가르쳐주시였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욱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전투를 미리 포치하시였으며 그해 7월 한달동안에만도 다음단계공사와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여러차례 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건설현장에까지 나오시여 2단계공사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궁전외랑과 광장을 어떻게 꾸릴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잊지 못할 20여년전의 그 나날은 나라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축원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2월 16일에도 건설장에 나오시여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조립된 돌들의 줄을 세심히 보아주시며 줄이 잘 맞는다고, 돌조립을 잘하였다고 건설자들을 치하해주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오랜 시간 작업현장에 계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 전반구역이 다 돌로 포장된 조건에서 외랑벽면에 인조석미장을 할것이 아니라 돌을 붙여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건설장을 수없이 찾으시면서 군인건설자들과 당원돌격대원들의 투쟁을 뜨겁게 고무하시였으며 수백차례의 교시를 주시였다.

주체85(1996)년 7월 2일 금수산기념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궁전외랑과 궁전광장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들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공사를 성의있게 질적으로 하였다고, 세계적인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 군인건설자들과 당원돌격대원들과 전국의 돌광산로동계급에게 커다란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며칠후에는 건설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정녕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수산기념궁전의 돌 하나, 나무 한그루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하고 신성한 금수산기념궁전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소문없이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무슨 말과 글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금수산기념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길에 쌓으신 가장 빛나는 력사적공적이며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여 금수산지구가 명실공히 주체의 최고성지로 세계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였다.

유서깊은 금수산지구에 높이 솟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주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업적을 천년만년 길이 전하며 주체조선의 력사, 태양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8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중앙기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데 대한 종합해설을 들은 다음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우러르면서 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체득하였다.

그들은 1990년대 초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주시고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로고를 전하는 사연깊은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주체83(1994)년 7월 5일과 6일에 진행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인민생활향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강령적인 카드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과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인 문건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친필글발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우리 조국의 자주적존엄과 강용한 기상, 최강의 국력이 만리대공에 떨쳐지고있음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한 만리마대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하여

당의 기본구호로

주체83(1994)년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이날 새로 형상한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면서 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이틀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당의 기본구호로 제정해주시였다.

이 구호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어리어있었다.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국제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해왔다는 긍지와 자랑을 우리 력사와 후세에 남겨야 하며 영원토록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고,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곧 수령님이시라고, 전세계의 벗들도 우리 수령님을 김일성주석님이라고 칭송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전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존함으로 된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분만을 긍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연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신념과 의지에 떠받들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였다.

주체년호와 태양절

주체86(1997)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년호를, 그이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 결정서를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은 커다란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사색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이 천만년 길이 빛나게 해주시였다.

정녕 우리 민족을 태양민족으로, 우리 나라를 태양의 나라로 온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본사기자 전광남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위대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창성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내 조국땅 그 어디 가나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황금산의 새 력사가 펼쳐진 창성땅은 더더욱 그러하다.

산골사람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창성땅을 찾으신 회수는 150여차이며 그 로정은 5만 5천여리나 된다.

이곳 군당위원회에서는 창성땅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군당위원회가 사상교양사업에서 주되는 힘을 넣은것은 군에 깃든 불멸의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이다.

군당위원장 최하철동무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곳들에서 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 조직하였다.

실례로 불멸의 사적이 깃든 군당위원장실과 군당회의실에서 자주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을 들수 있다. 군당위원장의 집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리시여 승리한 래일을 확신하시며 군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사적전물이다. 군당회의실도 우리 수령님께서 전후에 어려번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군인민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건물이다.

언제인가 군당책임일군은 군당일군들이 여기서 해설강의를 듣고 하루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반영이 좋았다. 사적건물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니 군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에 대한 사실자료들을 더 잘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도 사적건물에서 해설강의를 듣도록 하였다.

그 실효는 컸다. 군급기관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담당한 단위들에 나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할데 대한 내용으로 선전선동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로 군안의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창성군의 발전력사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의 력사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그들스스로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언제나 앞장서게 되였다.

창성혁명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놓고도 군당위원회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얼마나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창성혁명사적관사업을 료해하던 군당책임일군은 강사의 해설을 구체적으로 듣자면 참관시간이 길어진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토의끝에 참관자들이 한번에 한두개 호실씩 참관하여 해설강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합강의를 듣고 매개 호실들을 다 돌아보면 지난 시기의 방법에 비해 실효가 컸다. 참관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사적자료를 하나하나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던것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바쁜 농사철에는 창성혁명사적관 강사들을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여 이동강의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위대성교양을 틀쥐는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심화시킬수 있어 좋았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창골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온 군이 위대성교양열풍으로 들끓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자료를 가지고 문답식학습경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사람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덕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위대성교양에서 예술선동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군문화회관에서 자주 진행하는 군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놓고도 군당일군들이 예술선동의 감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는가를 알수 있다.

실례로 군문화회관에서 어떤 모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군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 작품 하나하나에도 김학천동무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벌리면서 예술소조원들을 이끌어준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난해 인민반장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연때에도, 산림부문 일군들의 모임에 앞서 진행된 공연때에도 군당일군들의 지도밑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때로는 작품의 주제에 맞게 집전자, 연고자들도 내세웠으며 여러 단위들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과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들까지 작품에 담으면서 공연의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새롭게 하였다. 그러니 군에서 조직하는 모임들에 앞서 진행하는 모든 공연의 실효는 언제나 높았다.

이렇듯 군당위원회가 위대성교양에 큰 힘을 넣은 결과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그것은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져 좋은 성과를 안아왔다.

은덕원과 군인민병원이 짧은 기간에 일떠서고 창성고급중학교전실, 금야리의 40세대의 살림집전실, 남새온실과 물상점전실 그리고 읍지구의 방대한 면적의 색블로크짓기, 영주천제방공사 등 군에서 계획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쭉쭉 풀려나가게 되였다. 이 과정에 창성군은 노래에도 있듯이 지난해와 또 다르게 변해가는 군, 만리마시대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으로 되였다.

창성군당위원회의 사업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자면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우리 당의 인민관, 후대관의 체현자들로

조건보다 우선시한 복무관점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지만 차가정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장 김정국동무는 잠들수 없었다. 그것은 오전에 있은 모임에서 자체의 힘으로 5층짜리 살림집을 건설하자고 하였을 때 우려를 표시하던 일군들의 표정과 함께 그 일을 자기 직장에 맡겨달라고 하던 녀성직장장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서였다.

이 대조적인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초급당일군에게는 지난 시기 종업원들을 위한 고기공급이 늦어지고 뱀잠보장이 제대로 안되는것을 조건에만 빙자하던 일군들의 태도가 무심히 여겨지지 않았다.

이날 초급당일군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을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일군들의 복무관점을 결정적으로 바로잡아줄것을 결심하였다.

그후 초급당일군은 다층살림집건설을 위한 돌격대를 꾸고 대오의 앞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일, 주모임에서 일군들의 긍정적소행들을 통보해주고 결함도 바로잡아주면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속에서는 무철한 복무관점을 지니고 일해나가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오늘 공장에 가면 종업원들을 위한 후방공급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다달이 고기, 기름, 땔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무철한 복무관점이 안아온 훌륭한 열매였다.

다시 만든 형성안

몇해전 어느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 있는 학교마당으로는 사진기를 멘 한사람이 들어섰다. 그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도를 여러번 바꾸어가며 건물의 외부와 내부, 그 주변을 일일이 렌즈에 담았다. 그가 바로 락랑구역 금대리당위원장 황보헌일동무였다.

하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언제인가 리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어 리안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멋있게 지어주자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서 진지하게 토의된 문제는 학교건물의 형성안을 어떤 수준에서 만들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후 일군들은 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해당 부문 일군들과 토의도 거듭하고 농장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며.

이런 진지한 노력속에 마침내 첫 형성안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형성안이 얼마후 당의 은정속에 번모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참관하고 돌아온 리당일군의 반대의견에 부딪쳤다. 그날 리당일군은 그 농장에 훌륭히 일떠선 학교의 전경에 대하여 말하며 우리가 만든 형성안이 당이 바라는 높이에 비추어 수령과 인민의 혈연의 정이 깊어졌고 어버이수령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억척으로 다져졌다.

그렇다.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무수한 《명석》들이 놓여있거니 그 력사의 증견물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주소가 인민의 심장속으로 되게 하여준 고귀한 재보가 아니겠는가.

청산리의 명석, 그것은 결코 절세위인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만을 불러주는 사적물이 아니다. 거기에는 당일군들이 깊이 간직해야 할 력사의 메아리가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산리에 가시였을 때 탈곡장에 펴놓은 멍석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담화를 하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는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털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과 함께 살자!

청산리의 명석을 영원히 잊지 말자!

바로 이것이 사연깊은 명석에 깃들어있는 고귀한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기풍

금성뜨락또르공장 당위원회 사업에서

북자들은 지난해 5월 미남자처럼 잘 생긴 뜨락또르의 운전칸에 오르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마련한 그 새형의 80hp뜨락또르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지금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공장로동계급이 당중앙에 승리의 보고를 올린 그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 비결을 우리는 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사업작풍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데서 찾아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대중령도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창조하고 발전시켜오신 주체의 령도방법입니다.》

뜻깊은 10월까지 100% 국산화된 새형의 뜨락또르 수백대를 만들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과업을 수행하자면 많은 지구와 장비들이 있어야 했고 계렬생산공정도 완비해야 했으며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도 풀어야 하였다.

당위원회는 검쌓인 애로와 난관을 뚫고 당에서 정해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는데서 찾았다.

그러기 위하여 당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업방법을 구현해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력사의 진리였던것이다.

전투를 앞두고 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아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여기서 잘한 점은 당일군들을 생산현장에 파견하기에 앞서 그들속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킨것이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늘 대중속에 들어가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는데서 좋은 작용을 하였다. 당위원장부터 제일 어려운 초소에 파지를 정하였고 부위원장들도 뜨락또르총조립전투장과 형타직장의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갔다.

당위원회는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전개하는데 힘을 넣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단위별로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참관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과 자력갱생의 전통으로 로동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 문제를 정신력발동의 중요고리로 보았기때문이다.

참관을 통하여 로동자들은 첫 《천리마》호뜨락또르의 탄생으로 천리마시대를 놀랍게 하였던 전세대들처럼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으로 당중앙을 옹위하고 만리마시대를 격동시킬 명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유압조향장치의 심장과 같은 회전자와 고정자의 연마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장실정에서는 할수 없으니 우에 제기하여 연마설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당위원장 김진광동무는 그 의견에 찬성할수 없었다. 설비가 해결되기를 기다린다면 당앞에 걸의다진 날자를 지킬수 없었고 그렇다고 현대적인 뜨락또르에 재래식부분품을 올려놓을수도 없었다.

그는 기술자,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방도를 탐구하였다. 협의회가 여러차례 열리였고 시험생산에서의 실패는 꼬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 한 기술자가 전해연마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향을 비치였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에 대한 기술적파악이 없었다. 당위원장은 기술자들이 다른 공장에 가서 그 방법을 배워오도록 떠밀어주었다.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연마문제가 해결되였을 때 사람들은 환성을 터치였다.

지난해 12월 새로 생산한 뜨락또르에 대한 주행시험이 진행될 때였다. 사나운 눈보라길을 달리는 뜨락또르뒤에 한대의 화물자동차가 뒤따랐다. 거기에 당위원회 부위원장 서광렬동무가 타고있었다. 손에 땀을 쥐고 운전하는 기술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고락을 함께 하는 당일군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로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일군들의 믿음은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앙양시켰다.

바퀴테와 조명등을 비롯한 수많은 부분품, 부속품제작에서 제기된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에서 돌파구가 열리였다. 그 중요한 비결은 바로 당일군들이 난관극복의 보술도, 기적창조의 원동력도 대중속에서 찾은데 있다.

이 공장 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당일군들이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기적이 창조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수필

청산리의 명석

우리 수령님은 어떤분이신가.

아마 몇천밤을 새우며 이야기한다 해도, 몇만권의 책을 쓴다 해도 그 위대한 세계를 다 담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우리 수령님이 시야말로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희세의 위인이심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던 수십년전 그날의 추억을 불러주는 청산리의 명석!

속담에 가깝게 앉아야 정이 더 든다고 했는데 어서들 가까이 앉으라고 농민들에게 다정히 이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음성이 귀전에 메아리쳐올수록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젖어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명석!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에 우리 수령님처럼 청빈한 농사군들이 앉는 명석우에서 정사를 의논하신 그런 위인이 있었던가.

예로부터 임금은 룡상에 앉아 정사를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농사군들이 앉는 수수한 명석우에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정하시였다.

무엇때문이던가. 어찌하여 심심산골 양덕군이며 북방의 길주군, 대동군과 신천군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느 농촌에나 우리 수령님께서 앉으시였던 명석과 돗자리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새겨진것인가.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은 인민의 신하이고 인민은 우리의 임금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자신을 신하로, 인민을 임금으로!

바로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였기에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잊을수 없다. 우리 수령님 농민들이 노전우에 펴놓은 돗자리와 방석을 밀어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있으니 나도 수령이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수령이겠는가고 하시며 허물없이 노전에 앉으시였던 그날의 사연.

가슴후덥게 되새겨진다. 소여물냄새가 팍 들어찬 방안에 모시는것이 송구스러워 물물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소여물냄새가 풍기는 이런 온돌방에 앉아 모임을 해야 농민들이 마음이 편해서 흉금을 다 털어놓소라고 하시며 성큼 방안으로 들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

한평생을 그렇게 사시였다. 인민이 있는 곳, 인민이 앉는 자리라면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추운 겨울날 자강땅의 어느 한 집에 가시여서는 따뜻한 자리를 권하는 집주인에게 아래목에야 주인이나 나이많은분들이 앉으셔야지요라고 하시며 웃목에 허물없이 자리를 잡으시고 살림살이형편을 들어주신분,

전후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서는 의자를 밀어놓으시고 무너진 벽체에 앉으시여 제강소를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복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던 그이,

두메산골농가의 문지방에 무람없이 앉으시여 초소에서 보내온 그 집 아들의 편지를 몸소 읽어보시며 안주인에게 좋은 며느리감은 봐두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

정녕 우리 수령님 스스럼없이 앉으시였던 그날의 무너진 벽체며 농가의 문지방과 웃목, 그 모든것이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석》이 아니던가.

그 《명석》우에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였고 당정책을 작성하시였다. 바로 그 《명석》과 더불어 수령과 인민의 혈연의 정이 깊어졌고 어버이수령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억척으로 다져졌다.

그렇다.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무수한 《명석》들이 놓여있거니 그 력사의 증견물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주소가 인민의 심장속으로 되게 하여준 고귀한 재보가 아니겠는가.

청산리의 명석, 그것은 결코 절세위인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만을 불러주는 사적물이 아니다. 거기에는 당일군들이 깊이 간직해야 할 력사의 메아리가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산리에 가시였을 때 탈곡장에 펴놓은 멍석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담화를 하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는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털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과 함께 살자!

청산리의 명석을 영원히 잊지 말자!

바로 이것이 사연깊은 명석에 깃들어있는 고귀한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만경대 방문, 평천혁명사적지 참관

【평양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그들은 8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를 찾은 국방과학전사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이어 그들은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뜨락에 들어섰다.

추녀낮은 초가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국방과학전사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업적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이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는 확신이 어려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은 이날 선군총대의 고향 정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국방과학전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혁명사적관에 정중히 모신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우러르며 그들은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탄생을 선언한 력사의 총성과 더불어 자립적국방공업의 초행길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백두산3대장군의 지혜로운 혁명생애를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기관단총사격장을 비롯하여 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주체적인 로케트무기체계가 확립되고 보다 위력한 로케트들을 개발완성할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될수 있었음을 절감하였다.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에 새겨안고 군자리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체탄의 줄기찬 뢰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하며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병기창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었다.

한평생 인민위해 바치신 위대한 헌신의 력사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

숭고한 념원 현실로 펼쳐가리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는 농업과학연구부문은 물론 전국각지의 농업부문에 널리 알려진 관록있는 연구소이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효능높은 벼모판종합영양제의 공업적생산과 적용기술을 확립하고 현무제형종자피복제의 공업적생산도입을 실현한 성과로 하여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두차례나 수여받는 영예를 지닌것을 비롯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농업화학화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귀한 유훈이 깊이 간직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농업화학화연구소 소장인 김치영동무는 농업과학부문의 권위있는 원사 료수 박사이며 공훈과학자이다. 일흔을 눈앞에 두고있지만 오늘도 청춘의 활력에 넘쳐 연구소를 이끌어가고있는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실력가, 정열가라고 말하군 한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더없는 영광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젊은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주체81(1992)년 7월 4일 농업화학화연구소 소장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2-3년밖에 되지 않던 김치영동무는 연구소의 한 실장과 함께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중요한 협의회를 지도하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장소로 농업과학자들을 부르신것은 다량원소비료에만 관심을 두면서 봉산아연비료와 같은 미량원소비료를 치는데는 큰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던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과학자들이 직접 미량원소비료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어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였다.

과학자들이 회의장소에 들어섰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40대의 한창나이였던 김치영동무에게 소장이 젊은 동무라고 정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을 많이 하라고 그의 앞날을 뜨겁게 축복해주시였다.

정법한 농업과학자들을 나라의 경제문제를 토의하는 중요한 협의회에까지 불러주시고 일군들앞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는 그를 비롯한 농업화학화연구소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수십년세월 보람찬 농업과학탐구의 길을 즐기차게 이어갈수 있게 한 슬기와 지혜와 열정의 마를줄 모르는 원천으로 되였다.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나날에도 김치영동무와 과학자들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뼈와 살에 새기고 수령님께 못다바친 충정을 위대한 장군님께 바쳐가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릴 일념으로 자기들이 연구한 복합비료와 농약들을 해마다 태양절을 맞으며 기증하는 사업을 최대의 지성을 기울여 진행하면서 유기질복합비료와 린비료를 대용할수 있는 미생물비료인 고농도린세균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카리리탄비료) 등의 공업적인 생산기술을 확립하였다.

살초제분야에서 첨단으로 인정되고있는 미량살초제의 다량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논벼재배형식별, 영농공정별로 다양하게 나오는 김의 상태에 맞으면서 단 한번의 처리로 여러가지 종류의 김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잡을수 있을뿐아니라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여러종의 논벼용미량혼합살초제들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리고 농약합성 및 유제제품생산공정, 나노살균물질제조공정, 강냉이종자피복제제조공정, 논벼용미량혼합살초제제조공정, 알비료제조공정 등을 그곤히 갖춘 첨단제품생산기지도 훌륭히 일떠세웠다.

자기들이 걷는 탐구의 한걸음한걸음이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고 당정책을 옹위하는 길이기에 오늘도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가치있는 농업과학연구성과로 받들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특히 최근 2~3년동안에 연구소에서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은 국가적의의가 매우 크다.

효능높은 벼모판전용비료인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우리의 지혜와 기술, 우리의 원료로 개발한데 이어 농업성과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벼모생육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원소들과 성장촉진제, 산도조절제를 혼합하여 만든 이 벼모판종합영양제의 효과성은 이미 알곡생산부문에서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수요가 대단하다.

이 무게있는 과학기술성과로 하여 연구소는 2015년에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현무제형종자피복제도 매우 의의가 큰 성과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이곳 과학자들은 종자의 싹트는률을 95%이상, 금병이를 비롯한 땅속해충의 구제률을 85%이상 보장하면서 정보당수확고를 10% 높일수 있는 수화제형의 강냉이종자피복제를 개발생산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농업성과 평원농약공장의 일군들,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과학자들은 종전제품에 비해 로동자들의 작업환경을 훨씬 개선하고 원가도 낮출수 있을뿐아니라 그 효능과 과학기술적수준이 더 높은 새로운 형태의 현무제형종자피복제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이 성과로 하여 올해에 또다시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음으로써 연구소는 관록있는 농업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영예를 떨치였다.

어머니당에서는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한마음 변함없이 충정의 길을 걷고있는 소장 김치영동무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불러주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어제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답이 불러주시였던 젊은 소장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연구소의 세대는 많이 바뀌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결사옹위하려는 농업화학화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신념과 의지는 오늘도 래일도 억척불변이다.

당중앙의 존엄과 권위를 주체탄개발의 핵이은 대성공으로 결사옹위한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을 벌려가고있는 이런 미더운 과학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과학기술전선에서는 승리의 포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뜨거운 은정 전하는 전변의 새 모습

평원군 삼봉리를 찾아서

7월과 더불어 더욱 간절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는 며칠전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평원군 삼봉리를 찾았다.

삼봉산기슭을 가까이 하느라니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잘 꾸려진 마을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산기슭에 자리잡은 삼봉리의 선경은 농촌마을의 고유한 정서를 한껏 더해주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리일군은 먼저 삼봉리에 깃든 위대한 사랑의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래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삼봉리는 해방전까지 무연한 벌을 끼고있으면서도 물이 없는탓에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이 분여받은 제땅에 첫 씨앗을 뿌리던 주체35(1946)년 4월을 비롯하여 무려 수십차례나 이 고장을 찾아주시였다.

삼봉땅을 찾으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지않아 물걱정을 모르고 벼농사를 짓게 된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을 뜨겁게 고무도 해주시고 농업협동조합을 꾸릴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조합이 나아갈 길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평원사과가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과수원을 더 많이 조성하도록 해주시고 축산업발전의 방도도 가르쳐주시였으며 수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오늘 삼봉리는 농촌문화주택들이 줄지어 일떠서고 사랑의 물길을 젖줄기로 하여 기름진 땅에서 오곡백과 가꾸어가는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였다.

삼봉땅의 오늘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가슴속에 뜨겁게 새기며 우리는 농촌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마을로 향하였다.

온 마을을 뒤덮은듯 한 과일나무들을 바라보며 동구길을 걸어가느라니 절로 마음이 흥겨워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우리는 어느 한 농장원의 집에도 들리였다. 사과, 복숭아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이 10여그루나 있는 아담한 살림집이였다.

봄이면 꽃향기속에, 가을이면 주렁진 과일향기속에 사는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우리의 말에 농장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마을에는 〈배나무집〉, 〈사과나무집〉으로 불리우는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에 리일군은 고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하여 리에서는 산기슭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살림집들을 수많이 건설하였다고, 하여 농장원들은 문화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고 자랑을 덧붙이는것이였다.

농장의 자랑은 그뿐이 아니였다. 이미 있던 낡은 건물을 대담하게 허물어버리고 건설한 문화회관에서 리안의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그대로 삼봉땅인 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의 메아리였다.

수림화, 원림화가 잘되여 숲속에 자리잡은듯 한 학교에서 배움의 글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아이들과 위생가방을 메고 주민들을 찾아 떠나는 의사들, 아담하게 꾸려진 리인민병원의 모습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리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두 떨쳐나 리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며 수놓아온 자랑은 끝이 없었다.

들리는 곳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결사관철하여 리를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같은 마음이 어려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은정을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될 삼봉리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호평받는 제품을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평양기초식품공장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기초식품문제를 두고 늘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확장할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대규모의 장공장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주체57(1968)년 11월 7일 몸소 공장을 찾아주시여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의 간곡한 유훈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지난 기간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장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여러가지 기초식품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순간도 멈춤이 없이 줄기차게 벌려왔다.

지배인 리근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것이 부족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여러 기초식품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된장생산능력을 훨씬 높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힘차게 울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를 더욱 빛내여나갔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를 실현해나가는 나날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으며 어제와 오늘이 대비되고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공장,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이 구현된 공장이라는 높은 평가의 말씀도 받아안게 되였다.

유훈관철을 위한 대중의 불같은 열의는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더욱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된장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지상의 과업으로 틀어쥐고 84개의 숙성탕크들에 대한 전면보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보통 40t의 된장을 저장할수 있는 탕크를 그것도 80여개나 단번에 전면보수하는것은 참으로 아름차고 방대한 과제였다. 현행생산도 놓출수 없었다. 하지만 공장종업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은 끝끝내 기적을 낳고야말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에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식의 강냉이눈분리공정, 콩정선공정, 맛내기생산공정, 떡운봉생산공정 등을 새로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실로 자랑할만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펼치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질좋은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불타는 일념에 넘쳐있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박현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어버이사랑은 대를 이어

우리 집에는 온 나라가 다 아는 한 장의 사진이 카보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주체50(1961)년 5월 7일 비날론공장(당시) 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 주석단에서 방하수소년을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위생복을 입은 저의 아버지(강하종)의 손을 번쩍 추켜드시고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주시는 뜻깊은 사진이다.

오늘도 천리마시대를 진감시킨 전설같은 사연을 그대로 담고있는 사진을 보느라면 영광의 그날 아버지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이 과장동무랑 자기 살을 떼여 붙여주었소. …》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금시라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방하수소년이 전신 48%의 중피부이식수술을 단행하게 되였다.

주체50(1961)년 2월 15일 당시 《민주청년》에 실린 기사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홍남비료공장병원 의료집단과 함흥의학대학 학생들에게 분에 넘친 축하문과 친서를 보내주시였으며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서는 저의 아버지를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는 은정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너무도 벅찬 영광을 받아안고 눈물을 흘리던 수십년전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오늘도 잊을수 없다. 그후 전국보건부문일군열성자회에 아버지를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면서 최상의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세기를 이어 더욱 뜨겁게 이어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8(2009)년 7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저의 아버지를 함흥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시여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대를 이어 충정다할 결의를 담은 저의 소박한 편지도 친히 보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머니당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난 함흥과학자살림집에 우리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해주었다.

정녕 해빛보다 따사로운 위대한 어버이의 품, 당의 품은 우리 가정과 온 나라 인민의 영원한 삶의 요람이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대를 두고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함흥시 회상구역 해빛2동 강윤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이며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올라지미르 이싸꼬브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8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올라지미르 이싸꼬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조선혁명박물관, 청년운동사적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도착

리까르도 깐뚜 가르싸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맞이하였다.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메히꼬로동당대표단

행정초급일군의 기수적역할이 중요하다

숙천군 약전농장 제14작업반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숙천군 약전농장 제14작업반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행정초급일군이 대중운동에서 기수적역할을 하도록 당조직이 적극 떠밀어주는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던 때였다.

작업반장 윤복순동무가 부문당위원장 홍영하동무를 찾아와 작업반전망도를 내놓았다. 부문당위원장은 놀랐다. 농사하기도 헐치 않은데 자체의 힘으로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 탈곡장, 분조창고, 축사 등을 건설할것을 반영하였기때문이였다.

작업반장은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해 애써온 일욕심이 많은 초급일군이다. 무슨 일이나 마음먹으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데 습관된 그가 이번에는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킬 결심을 내렸던것이다.

농장에는 또한 건설에 조예가 있는 인재도 있었다. 그를 생각하며 부문당일군은 작업반장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농장당조직에서도 적극 도와나섰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의 면모를 자체의 힘으로 일신시킬데 대한 조항이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되였다.

이 사업을 당적분공으로 스스로 맡아나선 작업반장은 건설물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농업과학기술선전실기초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작업반원들과 일하던 그는 일부 사람들이 다짐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을 알게 되였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세웠던것이다. 거친 일본새를 바로잡아주어야 했다. 그렇다고 추궁하는 식으로 교양하지 않았다. 다짐작업을 잘하지 못하여 기초에 균렬이 생기면 건물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일깨워주면서 한동의 건물을 일떠세워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질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작업장에 《천년책임》, 《만년보증》이라는 글발이 나붙었다. 작업반원들은 그 글발을 심장에 새아박고 다짐작업에 랑심을 묻어나갔다.

얼마후에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농업과학기술선전실이 일떠섰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서 행정초급일군의 주도적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업반에서는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탈곡장, 분조창고, 축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또한 다수확품종들을 받아들이고 콘모와 알선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종자소비를 훨씬 줄이면서도 해마다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높였다.

이런 자랑을 안고 몇해전에 작업반에서 세명의 분조장이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였다.

당의 농업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자면 행정초급일군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원칙을 양보하지 않도록 당조직들이 키잡이를 잘해야 한다. 부문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틀어쥐고나갔다.

올해 모내기전투에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모내기만은 분조단위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부문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농장의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온이 나게 하라는것은 당의 농업정책이다.

부문당위원회는 작업반원들속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갔다.

보여주기사업과 해설담화…

이런 사업은 그들스스로가 떨쳐나서게 했다.

특히 작업반장이 제 몫을 다하였다. 그는 모내기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고 이 사업을 책략있게 내밀었다.

분조장들이 로력일평가를 그시그시 명백히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분조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의욕도 부쩍 높아졌다. 중요하게는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는것이 곧 분조농사를 잘하고 다수확을 내기 위한 길이라는것을 인식하고 모내기전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였다.

부문당위원회는 또한 영농공정별평가세칙을 잘 만들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게 하였다.

실례로 자기 포전의 모내기를 앞당겨 끝낸 작업반원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었을 경우에는 로력일을 가산해주게 했다. 이것은 작업반을 한가정으로 만들었다. 또한 작업반원들의 경쟁의욕을 높여주었다. 작업반은 올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다수확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여러명의 작업반원들이 다수확운동의 선구자가 될것을 결의해나섰다.

대중운동에서 행정초급일군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대중의 열의가 앙양되는 가운데 작업반은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이곳 부문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행정일군이 기수적역할을 다하도록 당조직이 키잡이를 잘할 때 그 어디서나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단위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푸른 숲과 더불어 길이 전해갈 사랑의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자욱자욱은 이 땅의 한그루한그루 나무들에도 력력히 어려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태여난 수삼나무

원래 수삼나무는 지구상에서 없어져 화석으로만 남아있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발견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였다.

수삼나무는 학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가치도 매우 크다.

수삼나무는 굵고 높게 그리고 매우 빨리 자라는데 특히 어린 때에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다. 30년 자라면 높이가 20~30m나 된다. 이것은 소나무보다 5배나 빨리 자라는것으로 된다. 수삼나무는 겉이 곱고 굳으며 잘 트지도 않으므로 여러가지 가구들을 만드는데 쓸수 있으며 제지팔프원료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원림관상용으로도 좋은데 특히 다른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부터 이른 겨울까지 곱게 단풍든 잎이 붙어있어 풍치를 더욱 돋군다. 수삼나무에는 벌레가 끼지 않으므로 가로수로 심어도 좋고 정원이나 공원에 심어도 매우 좋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에 어느 한 나라 일군이 올린 수삼나무를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번식시킬것을 구상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몸소 화분에 심어 키우시였다. 전후에는 그것을 정원에 옮겨심으시고 겨울에는 벼짚으로 감싸키우시면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시였으며 그 번식방법까지 몸소 연구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물학자들을 부르시여 수삼나무를 대대적으로 번식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헌신을 전하며 수삼나무는 오늘 우리 나라의 곳곳에서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그 은정 전하는 평양백살구나무

평양백살구나무에도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3(1984)년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길에서 이전 쏘련의 한 가맹공화국을 지나게 되시였다. 그때 이 가맹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풍습대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는 살구와 단벗으로 정성껏 만든 파일꽃바구니를 삼가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살구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살구나무모를 조국으로 가져가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한알의 살구를 맛보시면서도 인민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한 가맹공화국일군들은 살구나무를종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을 골라 선물로 올리였다. 그때로부터 3년후에 그들은 5종에 300그루의 살구나무모를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살구나무모들을 중앙식물원에 보내주시고 잘 키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다른 살구나무와 섞붙임시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땅에 새로운 살구나무가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나무이름을 평양백살구나무로 부르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태여난 평양백살구나무의 꽃은 4월 중순에 피고 열매는 6월말~7월초에 딴다. 보통 살구에 비해 당분함량이 1.5~2배이며 비타민C는 2~3배나 들어있다. 나무모를 심어 3년이면 열매를 딴다. 이 나무는 빨리 자라며 북부고산지대를 제외한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재배할수 있다.

평양백살구나무는 유서깊은 만경대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퍼져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하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평양단풍나무에 깃든 숭고한 조국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던 주체42(1953)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아침 뜨락을 거니시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단풍나무아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나무밑에 어제는 없었던 씨앗들이 떨어져있었다.

6월이라 다른 나무들이 한창 무성할 때 이 나무에서는 때이르게 씨가 여물어 땅에 떨어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다른 점이 많은 이 단풍나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다른 단풍나무들은 산에서 옮겨다 심으면 단풍이 잘 들지 않는데 이 나무는 오히려 한색갈만이 아닌 여러 색갈의 단풍이 조화롭게 들군 하였다. 단풍나무는 일반적으로 5~6월에 꽃이 피고 9~10월경에 가서야 열매가 여물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단풍나무는 계절을 앞당겨 씨앗을 맺는다.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몸소 모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을 한 일군에게 넘겨주시며 양묘장에 가져다주어 번식시켜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씨앗을 받아든 그 일군은 카렐한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푸른 산천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뜨겁게 새기며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가슴설레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떠나려는 그를 다시 부르시고 양묘장 동무들이 표본을 볼수 있게 나무가지를 가지고가라고 하시며 몸소 단풍나무가지를 잘라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로 그날 아침에 보내주신 그 씨앗들이 움트고 자라서 오늘은 나라의 곳곳에 널리 퍼지게 된것이다. 평양단풍나무는 빨리 자라며 추위, 병해충 등에 견디는 힘이 세다. 이른봄 눈이 트기 전에 나무에서 받는 당즙에는 2~3%의 당분이 들어있다. 보통 20년생 나무에서 당즙을 얻을수 있다. 당즙을 졸여서 얻은 원료를 청량음료, 과자, 빵을 만드는데 리용할수 있다. 당즙은 50년이상 받을수 있다. 목재는 연하고 가공하기 쉬우므로 여러가지 세공품재료로 쓰인다. 나무는 가로수로 심으며 정원이나 공원, 유원지에도 심는다. 또한 뿌리가 왕성하게 뻗으므로 야산지대의 비탈진 곳에 심으면 땅을 보호하는데도 좋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후날 이 나무를 《평양단풍》이라고 몸소 이름지어주시였다.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어찌 평양단풍나무에만 깃들어있으랴.

진정 한그루 나무를 보시여도 부강한 조국의 래일, 더욱 행복한 인민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우리 정녕 잊을수 없다.

훌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무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숭고한 념원을 헌신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조국강산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는것인가.

사람들이여,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위대한 태양의 빛발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높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락원으로 빛내어나가자.

본사기자 주 령 봉

다함없는 흠모와 뜨거운 지성

위대한 수령님께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동물들과 선물식물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여도 이 행성 그 어디서나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한없는 그리움이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세계자주화위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끝없는 흠모의 마음은 그들이 보내여온 선물동물들과 선물식물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사람들이 즐겨찾는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지도자들, 저명한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올린 많은 선물동물들과 선물식물들이 있다.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이 보내여온 선물동물들은 150여종에 590여마리에 달한다. 그중에는 코끼리와 기린, 꽃사슴, 이끼럼지부기, 관학 등 희귀한 동물들이 많다.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은 월남의 국가수반이였던 호지명주석이 올린 코끼리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시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지만한 코대를 쥐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던 호지명주석은 위인에게 드리는 선물은 응당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특별한 보호속에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키우던 영웅코끼리도 선물로 올리였다.

2년후 월남의 범문동수상이 코끼리 1마리를 어버이수령님께 선물로 올리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짐바브웨, 소말리아, 마다가스까르, 에티오피아, 르완다, 베닌 등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올린 선물들마다에는 력사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고대한 덕망을 지니시고 만민을 태양의 넓은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시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헌을 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어리여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물론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보내여온 선물동물들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며 보람찬 삶을 누려왔는가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식물들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이 올린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비롯하여 440여종에 달한다. 그중 나무는 200여종에 1 200여그루, 화초와 약초 등은 230여종에 500여포기나 된다.

선물식물들가운데는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월남인민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큰잎키우리나무, 일본의 한 선박선원들이 마련한 영원한 번영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품종의 동백나무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이 삼가 올린 무병장수에 좋다는 415그루의 큰열매찔광이나무, 페바논의 상징이면서 희귀한 나무인 짧은잎설송, 평화의 상징인 히로시마의 단풍나무, 수리아에서 보내여온 만년장수약초 회향, 총련과 여러 나라에서 보내여온 다양한 품종의 장미들을 비롯하여 진귀한 식물들이 수없이 많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고 이끌어주신 인류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안고 오늘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선물식물들을 끊임없이 보내여오고있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이렇듯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공 로 혁

태양조선의 천하제일경 — 《백두산8경》

향도봉의 친필글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백두산의 명봉들가운데서 향도봉은 세번째로 높고 웅장한 봉우리이다.

해발높이가 2 712m인 향도봉의 바깥경사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숭고한 뜻을 담아 몸소 쓰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사람들은 무두봉을 지나 산림한계선에 이르면 처음에는 마주 바라보이는 높은 산들가운데서 어느것이 백두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다가 안개나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향도봉의 친필글발이 바라보이면 누구나가 저도모르게 《백두산이다!》라는 탄성을 터뜨리며 억제할수 없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이게 된다.

이처럼 향도봉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활달한 친필글발은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면서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 《백두산 8경》의 하나이다.

향도봉은 수직에 가까운 벼랑과 일정한 각도의 등성이로 이루어져있다. 그 경사면과 마루는 붉은색화산용암의 슬라크형응회암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척 보면 마치도 힘차게 휘날리는 대형의 붉은 기폭을 련상시킨다.

예로부터 하늘왕이 내린 곳이라고 하여 천왕봉으로 불리워온 향도봉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에 의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주체81(1992)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를 백옥같은 충정과 념원을 담아 향도봉의 바깥경사면에 그이의 친필글발을 삼가 새기였다.

향도봉의 조형미에 어울리게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진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발은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자주의 기치높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감정으로 되새겨보게 한다.

친필글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향도봉의 친필글발을 바라보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리 성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의 선률에 담아가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의 농업근로자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조선의 불뢰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습니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소식에 접하고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의 격정을 터치던 그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가렬했던 전화의 나날에 창작된 한편의 시가 떠올랐다.

…

중학생의 애리가 해맑게 남은 빰을
조준경모서리에 꼭 대인채
영웅적사로의 조준수는 일어나지 못해도
나의심장 가까운 곳에
그가 불러준 크지 않은 책에서는
그의 시가 울린다

—쏘라!
쏘라!

미제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하라!

이것은 한편의 시작품인 동시에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와 인민의 머리우에 폭탄과 포탄을 쏟아부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증오의 분출이였고 징벌의 더 강위력한 수단을 애타게 갈망한 전체 조선인민의 분노의 선언이였다.

1950년대에 울려퍼진 이 분노의 선언이 이제 더는 원쑤격멸의 의지로 불타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서 흩어지는 시로만 남지 않았다는것을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조선의 불뢰성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것이며 우리도 그에 대응한 보복수단을 쏠수 있는 날이 올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결심이 낳은 민족사적패거이며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는자들은 이 행성에서 우리의 무자비하고 철저한 보복타격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궁지높이 선언한 선군조선의 장쾌한 불뢰성이다.

다시는 《시일야방성대곡》의 구슬픈 곡성이 이 땅에 메아리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선군과 수산리의 참변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던 그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정녕 무엇으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7월의 하늘가에 울린 조선의 불뢰성은 우리 인민에게는 최후승리를 확신케 하는 환희의 뉴보라이고 원쑤들에게는 최후멸망의 무덤길을 재촉하는 악몽의 불소나기이다.

조선의 장쾌한 불뢰성은 미제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자기 땅에 앉아 남의 나라 령토에 불세례를 안기기 좋아하던 네놈들의 력사는 영원히 끝장났다.

《독립절》에 받아안은 《선물보따리》의 무게를 리성적으로 가늠할줄 알라.

그 무게를 가늠할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울릴 조선의 불뢰성에 의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남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인공바다물제조기술의 발전추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적극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며 산이 많고 세면이 바다로 둘레싸인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인공바다물을 제조하여 바다양식과 양어, 수족관운영과 해양과학연구, 의학부문에서 널리 리용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인공바다물이란 천연바다물의 화학조성과 류사하게 만든 화학용액을 말한다. 인공바다물을 제조하는것은 우선 바다물의 오염이 심해지는것과 관련된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바다물의 방사성오염과 기름오염 등이 심하며 특히 연안수역은 공장과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버림물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가지 중금속오염과 유기질오염 등이 심해지고있다. 또한 천연바다물에는 세균, 진균, 비루스, 독성미세마름류 등이 있으므로 바다양식, 미세마름류의 배양 등에서 인공바다물을 쓰고있다.

인공바다물은 곰팡이, 물개물 비롯한 포유동물과 관상용바다물, 물고기류, 조개류, 무척추동물의 기르기에 많이 쓰이고있으며 수족관에서뿐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기관들과 주택들에서도 리용되고있다. 현재 여러가지 인공바다물제조방법이 연구개발되였다.

우선 먼바다의 속층바다물을 증발농축시키는 방법이 있다.

먼바다의 속층바다물은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고 표층바다물에 가깝기때문에 그 바다물을 떠서 증발농축시키고 배로 수송한다음 여기에 자연수를 보충하여 인공바다물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바다물의 화학조성이 변하지 않게 탈수농축하는 방법으로 인공바다물을 제조할수 있다.

바다물의 화학조성이 변하지 않게 순수한 물성분만 제거하는 탈수농축기술이 도입되고있다.

또한 고체서슬과 소금 등을 기본원료로 인공바다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제염소들에서 천연바다물, 지하초염수를 리용하여 소금을 생산하고 남은 모액에는 여러가지 불순성분들도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처리하고 소금과 망초 등을 첨가하여 민물과 섞어 인공바다물을 제조하고있다.

바다물에 들어있는 주요염들을 혼합하여 인조바다소금을 제조하고 그것을 민물과 혼합하여 인공바다물을 만드는 방법도 개발되였다.

현재 인조바다소금에 민물을 혼합하여 인공바다물을 제조하는 설비도 연구되고있다.

인공바다물을 제조하자면 리용목적에 맞게 화학조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바다물의 제조원료로 리용하는 소금, 서슬, 각종 염들을 국산화하면서도 질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공바다물의 제조 및 리용과 관련한 해양생물학적 및 해양화학적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또한 리용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인공바다물제조기술과 그의 응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조선동해바다물의 표준화학조성을 해명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고체서슬, 류산나트리움, 염화칼시움을 기본원료로 하여 조선동해의 표준바다물의 화학조성과 같은 인공바다물을 제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사 박진길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증산군백송원료동원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대중체육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새겨주는 한편 높아지는 대중의 열의에 맞게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누구나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명절과 휴식일마다 배구, 롱구 등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와 체육유희경기들을 조직하여 일터가 흥성거리게 하고있다. 일군들이 대중체육활동의 앞장에 서고있다.

활발히 벌어지는 대중체육활동으로 하여 사업소에는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건축음향설계와 음향효과

극장을 비롯한 관람건물들의 관람홀건축설계에서 기본은 음향설계이며 건축공간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소리환경을 잘 보장하는것은 문화적이며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관람건물들은 기능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음향특성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이 일정한 소리나 음악을 들을 때 생동한 느낌을 받아안도록 훌륭한 음향효과를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한 음향효과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이루어지게 된다.

관람건물에서는 소리가 선명하고 풍부하게 들려야 할뿐아니라 고유한 음색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관현악단의 지음부가 충분히 살아나 소리가 온화한감이 나게 하여야 하며 메아리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음향효과를 훌륭하게 살리려면 관람홀건축설계를 음향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의 기초단계에서 기본은 관람홀의 수용능력에 따르는 필요용적을 설정하고 초기음특히 여러 면에서 반사되는 1차반사음이 관람석전반에 매우 짧은 시간에 고르롭게 분포되도록 평면, 단면의 크기와 형태를 바로 정하는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건축모형을 창조하고 음향모의프로그람에서 기본독료로 정한 1차반사음이 관람석에 도달한 시간을 계산해본다. 그리고 그것이 훌륭한 음향효과를 보장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크기와 형태를 변화시킨다.

다음으로 마감재료와 세부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다른 여러가지 음질지표들을 보장하기 위한 모의계산을 진행한다.

끝으로 관람홀의 음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리용되고있는 청감화기술에 의하여 소리를 들어본다.

청감화기술은 건축공간의 음향학적특성을 수자화된 지표로 표현하면 지난 시기의 방법과 달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내공간이나 설계상의 모형화된 가상공간안에서 음원이 소리를 낼 때 임의의 가상위치에서 소리를 들어보게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청감화기술을 도입한 건축음향설계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실내음향의 주객관적평가방법의 확립과 그 실현수단의 발전은 건축음향설계를 확고한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으며 음향모의계산과는 현실적인 소리마당에 부단히 접근되여 훌륭한 음향효과를 보장하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천 선 옥

앞으로 진행될 주요국제축구경기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 23살미만 선수권대회 예선경기가 진행된다. 예선경기에서는 40개 팀이 10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게 된다. 매 조에서 1위를 한 10개 팀과 2위를 한 팀들중에서 성적이 높은 5개 팀이 주최국팀과 함께 본선경기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 나라 팀은 라오스, 중국 대북, 중국 홍콩팀들과 함께 7조에 속하였다. 7조련맹전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게 된다.

우리 나라 팀은 7월 19일에 중국 홍콩팀과, 21일에 중국 대북팀과, 23일에 라오스팀과 경기를 하게 된다.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 예선경기가 진행된다. 예선경기에서는 40여개 팀이 10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며 매 조에서 1위를 한 10개 팀과 2위를 한 팀들중 성적이 높은 5개 팀이 주최국팀과 함께 본선경기에 진출한다.

우리 나라 팀은 중국 홍콩, 중국 대북, 중국 마카오, 브루네이팀과 함께 6조에 속하였다.

또한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타이에서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 우리 나라 팀을 비롯한 8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성적이 높은 2개 팀씩 모두 4개 팀이 준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 나라 팀은 오스트랄리아, 일본, 방글라데슈팀과 함께 2조에 속하였다. 대회에서 1, 2, 3위를 하는 팀들이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련맹 2018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몇해전 저의 아들은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에 부상을 당하고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길에서 청춘을 빛내인 장한 아들이였지만 그의 앞날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생각은 너무도 짧은것이였습니다.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어쩔수 없다던 저의 아들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치료전투에 달라붙은 평양시고려병원의 박송실선생님.

그의 심장속에 고동친것은 바로 저의 아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 조국의 장한 아들이며 자신의 친혈육이라는 그것이였습니다.

하기에 그는 매일, 매 시각 심혈을 짱그리 쏟으며 치료전투를 벌려나갔습니다. 입원생활에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고 많은 책들도 가져다주면서 병치료에서 신심을 잃지 않도록 애쓴 선생님, 그의 불같은 정성과 높은 의술에 의해 끝끝내 돌우에 꽃이 피는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저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제 대지를 활보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고보니 지난 수년간 딸려 병을 털고일어나 다시 초소에 서자고 힘과 용기를 주던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 모든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던 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진정이 더욱 가슴뜨겁게 어려옵니다.

바로 그들모두가 우리의 친혈육들이였습니다. 하기에 저와 아들은 심장으로 헤치고있습니다.

사람들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입니다.

룡천시 강철동 54인민반 허 영 숙

사대굴종과 동족대결로 얼룩진 매국행각

최근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첫 해외나들이로 미국을 행각하였다.

청와대에 들어앉으면 미국상전부터 찾아가 주종관계를 확약하며 혼사를 맡는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특등친미창녀인 박근혜역도를 임기전에 끼꾸리뜨린 초불민심의 대번자로 자처하며 《자주외교》니 뭐니 하고 떠들어온 현 당국자였기에 내외가 그의 미국행을 주시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력대 괴뢰대통령들중 가장 빨리 미국에 달려가는 《신기록》을 세운것도 모자라 도두명처럼 놀아대는 상전의 충돌을 자처하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림으로써 남녘민심의 기대를 배반하고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사실들은 남조선집권자의 이번 미국행각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절절하게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상전이 내민 예속의 굴레에 스스럼없이 목을 들이민 또 하나의 친미굴종적망동임을 생생히 고발해주고있다.

민족분렬의 원흉을 생의 《은인》으로 모신 추태

이번 미국행각길에서 괴뢰집권자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버지니아주 미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전투기념비》이다.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제가 수백년간의 침략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전을 기록한 장진호반전투를 《승리한 전투》로 둔갑시키고 개죽음당한 미군패잔병들의 명복을 빈다는 명목하에 지난 5월 괴뢰들로부터 수십만US$의 지원금까지 뜯어내어 세운것이 바로 이 보비이다.

여기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간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기념사》라는데서 장진호반에 동태귀신이 된 동료들을 내버려두고 황황히 도주한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흥남철수작전》을 《숭고한 희생》이니, 《최대의 인도주의작전》이니 하고 추어올리며 《당시 피난민들속에 나의 부모도 있었다.》, 《미국용사들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것이다.》, 《저의 뿌리는 한미동맹의 력사속에 있다.》는 궤변까지 무루이 늘어놓았다.

아무리 상전의 환심을 사고싶어 몸살이 났다한들 온 민족이 절규하는 침략자의 피절은 과거를 이렇듯 뻔뻔스럽게 미화분식할수 있는가.

문건대 무엇때문에 흥남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는지, 어째서 우리 겨레가 수십년세월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으며 흩어진 가족친척이라는 가슴아픈 대명사를 안고 살게 되었는지 그때 남조선집권자는 모른단 말인가.

지난 세기의 50년대초 미국이 일으킨 잔인무도한 침략전쟁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미군의 원자탄공갈이 아니였더라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떠한 피난민행렬도, 가족친척들의 생리별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와 자기 인생에 새겨놓은 사무친 원한을 절규하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며 생의 《은인》으로 떠받든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행각전기간 그는 입만 벌리면 《한미동맹은 가장 위대한 동맹》이며 《국경을 넘어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떠들다못해 친미보수《정권》을 과멸시킨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까지도 《미국이 이식해준 미국식민주주의가 활짝 피운 꽃》이라고 감히 모독해나섰다.

지어는 트럼프가 베푸는 서울파티 환대에 넋이 나가 백악관방문록에 《대한미국》이라는 글까지 남겨 세인을 웃기였다.

오만무례한 상전은 제집로 굴종의 올가미에 깊숙이 목을 들이미는 불쌍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더욱 철저한 길들이기를 위해 이미 합의한 《공동성명》을 비준도 해주지 않은채 유유히 골프장으로 떠났는가 하면 7시간동안이나 주구의 간을 말림대로 말리다가야 백악관 비서실장을 내세워 선심이나 쓰듯 접견해주는 희비극을 연출하였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이번 행각을 두고 《나라망신을 다시한번 시켰다.》, 《《대한미국》이라는 네 글자로 미국의 속국임을 명백히 하였다.》는 온갖 비난이 터져나오고 외신들까지 대서특필로 조소하였겠는가.

결국 이번 미국행각은 현 집권자 역시 추악한 친미굴종에서 살길을 찾으려 할뿐이라는것을 명백히 심증해주었다.

겨레의 열망을 배반한 동족대결맹약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리행하며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민심의 지지를 받았던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일치하게 《트럼프에게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겠다고 천명하라.》, 《미국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할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해나섰다.

이러한 민심앞에서 현 집권자는 대화를 통한 대북문제해결을 트럼프에게 설득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상하된 고위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승인없이는 절대로 개성공업지구재가동과 금강산관광재개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가 하면 트럼프앞에서는 북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대결망발을 꺼리낌없이 줴쳐댔다.

또한 우리에게 《최대의 제재압박》을 가하며 《북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실질적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이른바 《공동성명》이라는데 쪼아박음으로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겠다는것을 확약하였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자주통일의 길을 집요하게 가로막는 외세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미국의 철저한 《승인》하에 북남관계개선이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것은 사실상 우리와 전면대결을 계속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제 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건 《북핵페기》망발

남조선집권자가 가장 공을 들인것중의 하나가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공조이다.

우직하게 놀아대고있는 상전을 설복하여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그 무슨 《단계적인 북핵해법》으로 《북핵페기》를 성사시켜보겠다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먼저 미국에 보내어 《북의 핵 및 미싸일〈도발〉중단시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축소할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게 하여 상전의 의중을 슬그머니 떠보는 놀음도 벌려놓았다. 그러나 미국청가에서 《감히 미국의 립장과 다른 소리를 하는가.》 하는 질타가 쏟아지자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의 발언은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느니, 엄중경고를 하였다느니 하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였다.

《종국적으로 핵을 페기하는것이 한미공동의 목표》라느니, 《북의 핵과 미싸일발사는 국제법위반》이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은 합법적인것》이므로 절대로 바꿀수 없다느니 하는 망발들이 이번 행각기간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더우기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 횡포무도하게 감행되는 미국주도의 온갖 제재와 압박까지도 응당한것으로 비호두둔하면서 《기존제재리행은 물론 새로운 조치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맹약도 서슴지 않았다.

한때는 미국에 《아니요.》라는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객기를 부렸던 남조선집권자가 용기를 내여 했던 발언마저도 스스로 황황히 부정하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댄 물은 실로 비겁하기 그지없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전기간 《대북제재압박공조》에 대해서만 떠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비핵화》, 《비핵화를 위한 대화》 등의 문구들을 《공동성명》에 박아넣게 하여 주구들의 면상에 침을 뱉은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였다.

이렇듯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끼여들 자격도 없는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단계적해법에 의한 완전한 북핵페기》를 운운하며 희떱게 놀아댔지만 얻은것이란 상전에게 목덜미를 잡혀 저들의 대북정책에 《북핵페기》라는 풀기 어려운 족쇄를 더 든든히 채운것뿐이다.

남조선당국자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흐름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헤염쳐야 한다.

수십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에서 이미 승부는 가려졌으며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무기와 지구상에서 몇개 나라밖에 못 가진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자랑스럽고 위대한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과 탄도로케트는 끝을 모르고 강화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평화보장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허황하기 그지없는 《북핵페기》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

자청한 핵전쟁돌격대

남조선집권자는 이번에 상전의 호전적망동에 맞장구를 쳐대면서 미국의 제재식 남조선집권자가 내외의 비난을 모면해보려고 그 무슨 《한반도문제의 주도적역할》과 《인도주의적문제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화보니 뭐니 하며 광고해대였지만 참으로 낯뜨거운 번명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돌격대로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북남대화를 운운하는 파렴치한 기만술에 과연 그 누가 속아넘어가겠는가.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친미추종정책을 버리고 민족우선정책으로 돌아서야 하며 외세굴종의 구태와 결별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경고한바 있다.

외세를 등족우에 올려놓고 그와 결탁하여 대결에로 나간다면 전임자처럼 매국과 반역의 락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남조선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전기간 《대북제재압박공조》에 대해서만 떠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비핵화》, 《비핵화를 위한 대화》 등의 문구들을 《공동성명》에 박아넣게 하여 주구들의 면상에 침을 뱉은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였다.

이렇듯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끼여들 자격도 없는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단계적해법에 의한 완전한 북핵페기》를 운운하며 희떱게 놀아댔지만 얻은것이란 상전에게 목덜미를 잡혀 저들의 대북정책에 《북핵페기》라는 풀기 어려운 족쇄를 더 든든히 채운것뿐이다.

남조선당국자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흐름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헤염쳐야 한다.

수십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에서 이미 승부는 가려졌으며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무기와 지구상에서 몇개 나라밖에 못 가진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자랑스럽고 위대한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과 탄도로케트는 끝을 모르고 강화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평화보장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허황하기 그지없는 《북핵페기》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전기간 《대북제재압박공조》에 대해서만 떠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비핵화》, 《비핵화를 위한 대화》 등의 문구를 《공동성명》에 쪼아박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핵과 미싸일을 《교란》, 《파괴》하기 위한 무장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는것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 세계최대의 핵무기저장고로 섬겨바치고 북침핵전쟁의 돌격대로 나설것을 굳게 맹약한것이나 다름없다.

동북아시아지역정세긴장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싸드》배치문제에서도 그의 호전적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에 당당히 할 말은 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던 때가 언제인가싶게 《싸드》배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라느니, 《선행정권이 합의한것만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느니, 《미국은 싸드배치지역에 대한 위구심을 버려도 좋다.》느니 하며 사실상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해놓았다. 지어는 그 무슨 《주권적결정》을 운운하며 중국에 대고 《부당한 간섭을 중지》해야 하고 《경제보복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이는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주변나라들의 핵전장으로, 일차적공격목표로 내맡기며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긴장국면에로 몰아넣는 자멸적망동으로서 《싸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나서는 남녘인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우롱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동족의 핵은 기어이 제거하겠다고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조선반도평화과괴의 원흉인 미국의 핵전쟁자산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려는것은 력대 괴뢰호전광들과 다름바 없는 특대형범죄행위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초불대통령》이 아니라 외세의 입김에 초불처럼 흔들리며 핵전쟁돌격대의 명예를 서슴없이 메는 《불질대통령》으로 자청해나선 현 집권자에 대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있다.》, 《더 큰 외교적궁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세계최강의 핵무장까지 다 갖춘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국은 물론 외세의 전쟁책동에 추종하는 반역의 무리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있다.

원쑤와 등족도 가려볼줄 모르고 《안보》의 미명하에 전쟁히스테리망동을 계속 부려댈수록 차례질것은 쓰디쓴 참패와 멸망뿐이다.

흑떼려다 혹을 더 붙인 《조공외교》

남조선집권자의 이번 미국행각길에는 50여명이나 되는 기업인들이 동행하였으며 그들을 통해 미국에 섬겨바친 돈은 수백억US$에 달한다.

명색은 광국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이니, 상호리익이 되는 《일자리해결》이니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패들에게 헌납하는 노복의 진상품에 불과하다.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를 비롯하여 신통히도 트럼프의 클개들이 집결해있는 공화당리발지역에 앞으로 5년간 300여억US$를 투자한다는 바로 이것이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며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새롭게 합의한 이른바 《한미경제협력》의 핵심이다.

그 대가로 얻은것이란 트럼프의 피략스러운 《악수외교》의 상대역에 몇번 나서보고 누구도 본적이 없다는 백악관주인의 《사적공간》을 들러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먹자판에나 끌려다닌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섬겨바친것도 모자라 미국의 혈암가스를 해마다 280만t씩 수입할것을 강요당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증액과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이라는 엄청난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헌근지성》의 대가치고는 너무도 비참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종주국황제에게 네발걸음으로 기여가 값비싼 조공을 섬겨바치면서도 치욕을 면할수 없었던 봉건시대 병주들과 다를게 무엇이란 말인가.

문건대 괴뢰당국자에게는 이 쩔통더위속에서도 생계비인상을 호소하며 과업에 떨쳐나선 제 백성들의 피타는 절규보다 미국상전이 입고있는 경제적손실이 더 걱정된단 말인가. 지금껏 목이 쉬도록 떠들어대던 《사람중심의 경제》, 《일자리대통령》이라는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누구나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오죽하면 《수백억US$에 달하는 선물보따리를 들고가 얻은것은 매우 초라하다.》,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지금 남조선각계는 집권자의 이번 미국행각이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한 대결행각, 관계개선이 아니라 관계파탄을 선언한 반통일행각이라고 신랄히 단죄규탄하고있으며 그 파국적후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친미사대와 등족대결에 매여달린자치고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면한자 없고 민족의 버림을 받지 않은자 없다는것이 력사의 처절한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오늘과 같은 중대국면에서 사태를 바로 보고 계정신을 차려야 하며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조 남 수

광범히 전개되는 반역정당해체투쟁

민심의 지향에 역행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의 광사나운 추태에 분노한 남조선 각계층이 반역당의 해체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들이 매일과 같이 진개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이 반역당의 당사앞에서 진행된 규탄집회가 이채로운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조소하는 5행시짓기가 진행되었다.

시짓기에서는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민족을 반역하여 남조선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긴 역적당을 기어이 박살내려는 남녘민심이 그대로 표출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글자들을 시행의 첫머리에 넣은 5행시들을 창작하여 게시판에 내다붙이였다. 시들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보수패거리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대변한것으로 하여 사회각계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자유당》의 리승만
《유신정권》의 박정희
《한나라당》의 리명박근혜
《국가》를 망친
당대 최고의 쓰레기들!

《자한당》이란 족속들은
《유신》의 망령이 덧씌워진
한심하고 더러운 집단이라
《국민》이 초불의 힘으로 다시
뭉쳐
당차게 적폐청산 이루어냅시다!
…

이날의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것들을 때려잡는 《두더지잡기》와 반역정당에 대한 증오를 담아 대형현수막을 찢어버리는 활동도 진행되였다.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웨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자유한국당》해체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주민들은 얼마전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내용의 글들이 씌어진 구호판들을 들고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도 집회를 벌리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당리당략에만 미쳐돌아치는 적폐집단, 초불민심발목잡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범죄집단으로서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도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종북》몰이와 색깔공세가 도를 넘어서고있다고 하면서 이 반역당이 민중의 요구인 악폐청산과 사회개혁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진정기운을 고취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들은 등족대결에 광분하는 보수패당의 망동이 안보를 구실로 저들의 정치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음모책동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분렬에 기생하여 존재해온 보수패당에 의해 북남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는 끝없이 고조되였다고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중의 초불항쟁에 의해 박근혜역도가 파면되고 구속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민심에 도전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더한층 강화할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뿐이 아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 단체인사들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타령을 늘어놓으면서 《국회》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은 초불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더욱 앞당길뿐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도 《자유한국당》을 특대형부정추문사건의 주범, 거짓말정당으로 락인하면서 반역당해체를 위한 각계의 투쟁에 합세해나서고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을 비롯한 여러 대학생단체들은 얼마전 《자유한국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이 민중을 우습게 여기며 초불민심에 역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보수패거리들이 지난 집권시기 《반값등록금》거짓말로 대학생들을 우롱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모든 악폐들을 빚어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이니, 《통합》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여전히 민중을 기만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어 그들은 박근혜탄핵을 반대하며 사회를 어지럽혔을뿐이라 거짓말만 앞세우며 청년실업사태를 초래한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을 따라 고조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한국당》해체투쟁은 민심의 증오와 비림을 받는 보수패거리들의 파멸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엄 수 련

미제가 핵전략폭격기들에 의한 반공화국정밀타격훈련 감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8일 미제가 《B-1B》핵전략폭격기 2대를 남조선상공에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밀타격훈련을 벌리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날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제의 핵전략폭격기편대는 미공군의 《F-16》전투기, 괴뢰공군의 《F-15K》전투기들과 함께 남조선강원도의 한 사격장에서 우리의 로케트발사대와 지하시설들을 노린 실사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화약내를 풍기며 돌아친 《B-1B》핵전략폭격기들은 군사분계선가까이로 비행하며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였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이것이 우리의 거듭되는 로케트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된다고 궤변댔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코에 걸고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더욱 증대시키는 미제의 날강도적책동은 자멸적후과를 면치 못할것이다.

궁지에 빠진자들의 무모한 불장난소동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질겁한 괴뢰호전광들이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미제와 야합하여 무모한 불장난소동에 매달리고있다.

6일 호전광들은 괴뢰군 해군과 공군의 각종 함정,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조선동해에서 합동실사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그러면서 그것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에 대한 《군사적대응조치》라고 희떱게 떠벌였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조선동해에서 미제침략군과 함께 탄도미싸일발사놀음을 벌려놓으며 허세를 부렸다.

한편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해병대무력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상륙작전이후의 일무수행훈련을 비롯한 군사연습에 들어갔다.

온 행성을 격동시킨 우리의 위대한 승전소식에 기겁하여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대결광기를 부리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이야말로 친미사대, 등족대결을 체질화한 역적의 무리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피난민문제해결조치

잠비아대통령 에드가르 룬구가 최근 피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승인하였다.

새 법은 지난 시기의 피난민통제법을 대신하게 된다고 한다.

6월 22일 정부는 이 법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살고있는 외국인피난민들에게 초보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앞으로 잠비아에서는 피난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고 한다.

불법행위방지조치

에티오피아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주요금광들에 5개의 금무역센터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금을 제때에 수집하여 생산물의 비법거래현상을 방지할것이라고 한다.

마약반대투쟁

타이에서 6월 26일 국제마약금지의 날을 맞으며 마약을 소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방콕크의 북부교외에서 진행된 의식에서는 마약소탕작전과정에 압수된 약 9t 321kg의 각종 마약을 불태워버렸다.

이와 같은 의식은 주민들에게 마약의 해독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한다.

같은 날 만마의 양곤시에서도 마약을 소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에서는 아편과 헤로인을 비롯하여 이미전에 압수하였던 25종류의 마약을 불태워버렸다. 시에서는 3월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1 500명의 마약범죄자들이 법적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제약공장 조업

스리랑카의 중부지역에 최근 제약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조업식이 진행되였다. 공장에서는 당뇨병, 고혈압 등을 치료하는 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게 된다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약품수입을 현저히 줄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오물처리시설 건설

네팔의 까트만두에서 실리있는 오물처리시설이 건설되여 6월 27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설에서는 수도의 2개 장소에서 수집된 오물을 처리하는데 매일 3t의 오물로 14kW의 전력과 300kg의 유기질비료, 96kg의 액화가스 등을 생산하고있다 한다.

나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오물처리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감비아에서 치료사업

화약고우에서 불장난질을 하지 말라

미제의 핵전쟁도발망동이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미호전광들이 전략폭격기들의 조선반도출격을 매철 1회이상 정례화하겠다고 공언해나섰다. 얼마전 《B-1B》전략폭격기편대가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지난 시기와는 달리 폭격비행과정을 페것이 활영, 공개하면서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겨냥한 핵폭탄투하연습에 광분한것은 그에 따른 움직임이다. 때를 같이하여 미제는 일본 요꼬스까항을 모항으로 하고있는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에 200㎞이상이나 침범시켜 엄중한 반공화국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전쟁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박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분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취하며 정세를 폭발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전략폭격기들의 폭격훈련정례화소동은 그야말로 히스테리적망동이다.

전략폭격기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과 핵위협공갈의 대명사와도 같다.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들마다에서 살인장비로 악명을 떨쳤다.

특히 미제는 전략폭격기를 항공모함타격단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압박수단으로 휘둘러왔다. 세기를 이어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핵위협공갈소동의 앞장에는 언제나 《B-52H》, 《B-1B》, 《B-2A》와 같은 전략폭격기들이 있었다. 이 살인장비들이 흉물스러운 몰골을 드러낼 때마다 남조선에서는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들이 벌어지고 조선반도와 지역상공에는 핵전쟁발발의 검은 구름이 떠돌았다.

조선반도는 무력배치의 집중도에 있어서 형성의 그 어느 지역과도 대비할수 없는 화약고이며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공인된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다.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도 순간에 핵전쟁발발에로 이어질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되여있다.

미국이 전략폭격기들의 조선반도출격을 정례화하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댄것은 결국 화약고우에서 불장난질을 하겠다는것과 같은 미친것이다.

미제가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우리 경제수역깊이까지 침범시켜 로골적인 정탐행위를 감행한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지금 미국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있다. 행정부와 미중앙정보국에 우리에 대한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통합조직과 기구들을 내온다 어쩐다 하며 분주랑을 피우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우리 공화국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임무센터라는것을 새로 조작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탐모략기구를 내온것은 처음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우리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524정보대대의 활동을 재개하려 하고있다.

미태평양군사령부는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5대를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의 요꼬다공군기지에 배치하여 정탐력량을 강화하였다. 반공화국정탐모략에 미국의 방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동원되였다. 전쟁전야에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유사시 핵전략자산들의 신속전개와 군수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련합해양작전본부를 내온다, 핵잠수함들의 순항미싸일발사판수를 늘인다 하고 침략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실증이다.

미제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은 극한점으로 치닫고있다. 심각한 집권위기에 시달리는 트럼프행정부는 그 출로를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세긴장과 새 전쟁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느니, 믿어달라느니 하고 횡설수설해대며 법의법 오그랑수를 다 써도 인디안의 해골더미우에 솟아난 아메리카제국의 승냥이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그에 대한 실천적립증이다.

리 효 진

ㄱ-71108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송달료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